

영산강유역 방대형 분구상(墳丘狀) 성토물의 사회적 의미

A Study on the Social Meaning of Squarish Platform Mound-shaped Embankment
in the Yeongsangang River Basin

한 육 민
(재)대한문화재연구원 연구교수

I. 머리말

II. 방대형 분구상 성토물에 대한 인식

III. 자료 검토

IV. 방대형 분구상 성토물의 축조 배경과 사회적 의미

V. 맺음말

국문 요약

이 글은 5세기 중엽~6세기 전엽에 조성된 영산강유역 방대형 분구상 성토물의 사회적 의미를 검토한 연구이다. 필자는 기존의 방대형 고총고분 자료 가운데 중심매장시설을 갖추지 않는 경우를 ‘方臺形 墳丘狀 盛土物’로 규정하였다.

검토 결과, 방대형 분구상 성토물이 갖는 사회적 의미는 6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방대형 분구상 성토물은 고총 성행기의 서막부터 종말까지 연속된 유일의 토목 축조물이다. 둘째, 성토물에 반영된 신기술 등은 물질자료뿐만 아니라 사고·관념체계에도 새로움을 이식시켰으며, 이와 관련된 고고자료 중 하나가 방대형 분구상 성토물의 완성이었다. 셋째, 맹대형 분구는 주로 무덤 용도로 이용되지만, 일부는 기념물 용도로 이용되기도 하였다. 넷째, 입면적 형태는 원대형도 일부 확인되나, 단연 방대형이 암도적으로 선호되었다. 다섯째, 방대형 분구상 성토물은 고총고분과 형태·규모·기술적으로 상호 간 많은 유사성이 확인되었다. 여섯째, 마감시점은 최절정에 달하던 고총고분의 축조 정지, 전용옹관 제작의 종언 등 최소한의 신분 표상의 지표들이 사라지는 시점과 일치되고 있다.

이상으로 볼 때 방대형 분구상 성토물은 고총고분의 출현과 마감을 같이하는 유일한 성토물로서 당대 사회 전반을 대표하는 인문적 경관으로 자리매김하였고, 영산강유역 전역에 걸쳐 유행하였다. 그 용도는 주로 무덤으로 이용되면서 권력과 지배의 당위성을 표현하는 기념물로 인식되었고, 때로는 축조 세력의 묘역 속에 자리하여 집단의 안녕과 사회 통합을 유도하였다. 다만, 이미 고정화된 방대형 고총고분의 분구 축조공정을 그대로 이용한 것으로 보아 ‘이원적 지시대상(무덤+기념물)’인 고분의 형(形)에 기반함을 알 수 있었다. 방대형 일색으로 무덤에서 기념물까지 표현한 것은 특정 형태가 갖는 일종의 사회적 메시지로 해석된다. 대외적으로는 선진의 백제와 연결되어 권력의 정당화 및 정치적 결속력 강화를 표출하는 상징적 지표로 선택했던 것으로 보인다.

고분 연구는 유존하는 소재로 다뤄지는 경향이 있지만, 본질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사망에서 제사까지의 전 과정을 고려한 상·장제 및 묘역 경관에 대한 연구가 병행되어야 한다. 우리에게 고분으로 인지된 성토물은 그 안에 깃든 정신문화적인 배경이 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의 연구 대상인 방대형 분구상 성토물 또한 이러한 시각으로 접근할 때 그 영역에 한결음 더 가까워질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어 :영산강유역, 방대형 분구, 분구상 성토물, 기념물, 백제

I . 머리말

마한사에서 방대형 분구상 성토물은 가장 큰 규모로 조성된 성토물 중 하나이다. 기왕의 연구는 매장시설과 부장품의 계통, 편년 설정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특히 탁월한 규모와 높이로 조성된 고총고분의 분구는 피장자의 권위와 위계가 가장 잘 반영한 고고자료로 평가되면서도 정작 그 자체는 내부시설 파악이라는 대원칙 하에 제거되는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이는 분구에 관한 토층 자료가 전무했던 것도 원인 이겠으나, 외피의 기능으로 보아왔던 인식의 문제일 것이다(한옥민 2019: 39~40).

방대형 분구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게 된 것은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방대형 분구는 외형적으로 고대하다는 현상뿐만 아니라 이전에 없던 고난도의 축조기술이 적용된 성토물로 파악되면서 피장자의 사회적 지위를 반영하는 고고학적 지표 중 하나로 인식되었다. 이는 권력의 소재로써 영속적인 분구를 남기려 했던 대유행 속의 결과물이며, 무덤이라는 본연의 기능 외에도 사회적 의미를 담은 일종의 기념물 내지는 상징물로 논의되고 있다.

이제까지 조사된 영산강유역의 방대형 분구는 대부분 피장자를 안치한 무덤에 해당되지만, 그렇지 않는 일부 사례(필자의 방대형 분구상 성토물)도 존재하므로 양자를 기능적인 측면에서 구분해 볼 여지가 생겼다. 후자에 대해 빈무덤 혹은 壽墓로 인식하려는 경향이 있었으나, 고분 개념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므로 지금까지와는 다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비교 자료의 부족으로 인해 양자를 구분할 사정이 되지 못하였으나, 다양한 묘 · 장제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분류 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다.

이에 본고는 방대형 분구상 성토물 자료에 있어서 지극히 기초적인 의문을 해결하고자 기능에 따라 구분한 후, 고총고분 성행기 동안에 조성되었던 사회적 의미를 살펴보자 한다. 필자는 그 출발점에 서있는 방대형 분구상 성토물 자료에 주목하였다.

II . 방대형 분구상 성토물에 대한 인식

1. 연구 현황

영산강유역에서 方形 또는 方臺形 墳丘¹⁾는 호남지역 주구묘의 시원형으로 인식되고 있는 영광 군동 18호분의 조사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었다. 5세기 중엽 이후에 본격적으로 출현하기 시작한 방대형 분구로 성토된 사례들이 막연히 영광 군동 18호분과 무안 인평 1호분 등을 계승한 재지계의 분형으로 인식하여 왔다(한옥민 2019: 41 ~43). 그러나 梯形 墳丘가 지역사회의 대표적 분형으로 자리 잡았던 3~4세기에 방대형 분구의 존재를 논의할 수 있는 사례는 무안·해남·장흥지역에서 확인되는 소수에 불과하다. 밑면의 평면형태가 정형성을 갖는 방대형 분구는 영암 옥야리 방대형 1호분 조성 이후에 출현함에 따라 규모뿐만 아니라 축조기술적인 측면에서 제형 분구 병행기에 조성된 것과 구분이 필요하게 되었다

방대형 분구의 기원에 대해서는 연구자 간 이견이 있다. 낙랑의 방대형 목곽봉토분 영향으로 본 견해(성정용 2000: 9~10), 백제고분의 영향으로 본 견해(성낙준 1997: 44~47; 우재병 2013: 142~149; 한옥민 2019: 55~56), 재지의 제형 분구로부터 발전된 것으로 본 견해(전남대학교박물관 1999: 167~172; 김낙중 2014: 38~39; 최영주 2015: 129~133), 고창지역 고분의 영향으로 본 견해(이문형 2020: 51~55) 등이 있다. 낙랑의 방대형 목곽봉토분과 백제고분은 분형의 유사성은 인정되지만, 지상식 구조를 갖는 영산강유역의 분구 축조원리에서 차이를 보인다. 반면, 제형 분구로부터 발전된 것으로 본다면 분구 축조원리, 다장 풍습 등 공유된 요소가 많음은 인정된다. 또한 5세기대에 들어서면 제형 분구를 개축하여 방대형으로 전환한 나주 복암리 2·3호분·덕산리 11호분·가흥리 정가고분, 무안 구산리고분 등의 사례가 있어 연속성을 주장하는 데 무리는 아니라고 할 수 있으나, 전통의 목관·옹관 중심에서 석곽·석실로의 변화를 논증할 만한 충분한 상황은 되지 못한다. 영산강유역 보다 시간적으로 한 단계 앞서는 고창 봉덕리 1호분 영향으로 보는 견해는 정형화된 분구, 지상식 구조, 위신재 등 신요소에서 공통점을 보이는 점에 주목하였는데 전북의 고창에서 영암지역에 이르는 광역의 지역구도가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의 제시가 필요하다.

영산강유역은 정형성을 갖춘 방대형 분구가 새롭게 출현한 5세기 중엽 이후에 큰

1) 영산강유역에서 평면 방형의 고분은 예외 없이 분정에 평탄부가 형성된 方臺形을 이루고 있다(임영진·조진선 2000: 275). 이는 재지의 전통인 다장을 하는데 편리한 측면이 많으며, 경사면을 이루는 방추형보다는 평坦면을 이루고 있는 방대형이 더 유리했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고종기의 자료가 주 대상이므로 입면까지를 고려하여 ‘방대형’ 분구로 부른다.

변화가 발생한다. 이 시기를 기점으로 제형 분구는 점차 사라지고 방대형을 비롯한 원대형과 전방후원형 등 다양한 분형이 조성되기 시작한다. 각 분형의 선호도는 지역적인 차이를 보이는데 영암 옥야리 방대형 1호분, 함평 금산리고분처럼 별도의 공간에 독립적으로 조성되기도 하고, 광주 평동 원두·오선동·산정동 지실고분, 나주 복암리고분 등은 제형 분구로부터 방대형 분구로 전환하기도 한다. 반면, 원대형으로 전환한 사례도 확인되는데 화순 내평리고분, 광주 평동 월전·선암동고분, 해남 분도 고분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를 지역공동체 내에서의 차별화의 필요성에 의한 것으로 보기도 하고(김낙중 2009: 158~159), 지역단위체 간 우열이 발생한 결과적 현상으로 보기도 한다(이영철 2015: 240~243).

2. 고분과 분구상 성토물의 비교

고고학에서 古墳이란 한국고고학에서 고고학적 연구 대상이 되는 모든 옛 무덤을 가리키고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삼국시대 지배층의 무덤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최성락 2009: 112; 권오영 2011: 48; 박형열 2014: 2~3).

한국고고학전문사전에서는 “고분이란 지하 또는 지상의 매장시설을 만들어 시신을 안치하고 그 위에 흙을 높이 쌓아 올려서 만든 오래된 무덤”을 통칭한다. 이런 의미에서 고분이란 과거 사회에서 매장의례 행위가 물질적인 증거로 남은 것이라 할 수 있다(김길식 2009: 68). 실제로 고고학에서 무덤을 지칭하는데 있어 원삼국 이전의 무덤을 묘나 분묘로, 삼국시대 이후의 무덤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묘보다는 분이라 는 용어를 사용하여 구분한다. 예를 들어 적석목곽묘가 아니라 적석목곽분, 횡혈식석실묘가 아니라 횡혈식석실분, 수혈식석곽묘가 아니라 수혈식석곽분이 원칙에 더 부합한다고 보고 있다(권오영 2011: 48). 이러한 개념 정의는 중의적 의미를 담고 있는데 하나는 외형적 요소인 墳·封의 존재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적인 계층화가 이루어 진 이후에 조성된다는 사회적 의미를 중요시하고 있다.

영산강유역에서 방대형 분구로 조성된 고분 자료는 분구 중앙에 중심매장시설을 조성한 현상에서 본연의 용도가 무덤이었음을 분명하게 말해준다. 이들 자료는 외부 시설로써 대부분 주구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분구 중앙에 중심매장시설을 조성한 이후에도 순차적으로 추가매장시설이 들어서는 소위 분구묘 전통이 6세기 전엽까지 연속된다. 매장시설 종류는 5세기 중엽 이후에 들어서면서 점차 목관·옹관에서 석

과·석실 중심으로 대체되고, 복수의 중심매장시설을 조성하던 것에서 단독 조성으로 변화한다. 다만, 5세기 후반 이후에도 나주 대안리·덕산리·신촌리고분, 무안 덕암고분 등은 분구 중앙에 여전히 옹관 일색으로 조성하는 양상을 통해 지역 전통이 유지되고 있음을 입증해 주고 있는데, 분포권이 나주·무안·영암지역을 중심으로 한 영산강 중하류역에 한정되는 양상을 보인다.

[표 1] 분구상 성토물의 제 속성(한옥민 2022: 16)

유적 명칭	공간성		군집양상		읍식서설		평면형태		주구시설	
	능선상	말단부	군집	단독	유	무	원형계	방형계	유	무
담양 중옥리 서옥고분	●		●			●	●		●	
담양 중옥리 중옥고분		●		●		●			●	●
무안 고절리고분	●			●		●			●	●
나주 월양리 구양고분		●		●	●				●	●
나주 동곡리 횡산고분		●		●		●			●	●
영암 갈곡리 1호분	●			●		●			●	●
함평 금산리 방대형고분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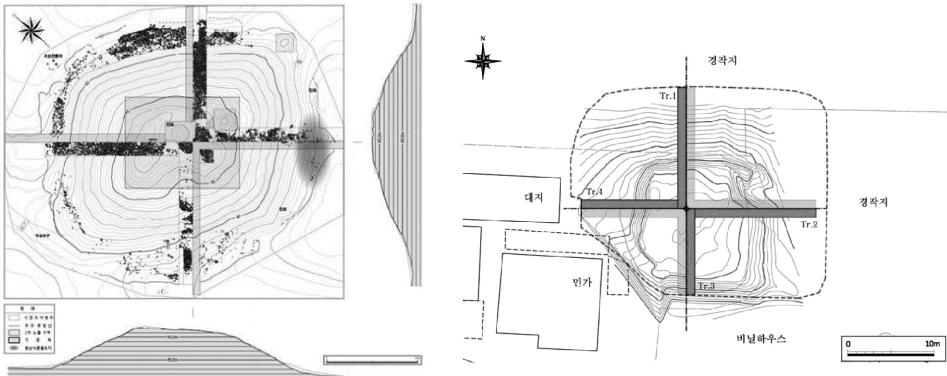
그러나 방대형 분구 자료 가운데 고분의 개념을 적용하기 어려운 일부 사례(필자의 방대형 분구상 성토물)도 존재한다. [표 1]과 [표 2]에서 보는 것과 확인된 제 속성²⁾들을 통해서 볼 때 무덤보다는 일종의 기념물 성격³⁾으로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며, 담양 중옥리 중옥고분, 함평 금산리 방대형고분, 무안 고절리고분⁴⁾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들 사례는 개체 수에 비해 비교적 넓은 분포권을 보이며, 담양에서 영암 지역까지 영산강 전역에서 확인되고 있다. 외형적인 형태는 대부분 방대형으로 조성

2) 방대형 분구상 성토물로 분류되는 사례에서 확인된 제 속성은 공간성, 군집양상, 평면형태, 읍식시설 유무, 주구 시설 유무 등을 논의할 수 있다. 군집보다는 단독적 공간의 점유성을 보이면서 주구를 시설하는 비율이 매우 낮다는 특징이 있다. 평면형태는 대부분 방형계 중심이며, 원대형도 일부 확인된다. 특히 주구를 갖춘 고분이 평지 부에 군집을 이루어 조성되는 경향에 비추어 볼 때, 외형적 완료에서 양자의 종결적 관념 차이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한옥민 2022: 2~5).

3) '기념(記念·紀念)'이란 역사 속의 인물이나 사건, 특별한 장소나 시간 혹은 신비스러운 자연 현상 등을 영원히 기억하고 축하하거나, 추모·위로·애도하는 등의 개인·집단적 감정을 공적으로 표출·전달하는 동시에 각자 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간직하는 것을 말한다(이상호 2015: 13). 그래서 기념은 기억을 전달하는 행위이며, 특히 주기·반복적으로 상기되는 특성을 지닌 특별한 기억들에 대해 지속성과 항구성을 부여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한소영 2009: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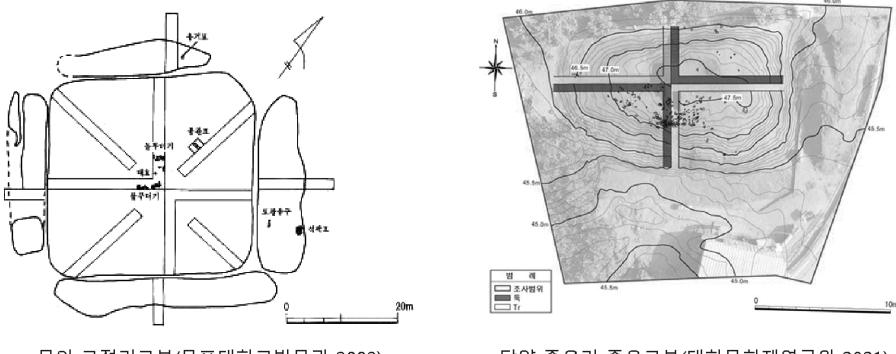
4) 이들 사례는 발굴조사보고서와 연구논문, 그리고 국가·지방지정문화재 명칭에서 모두 고분으로 부르고 있다. 여기에서는 혼란을 주지 않기 위하여 유구·유적 명칭에 한하여 현행대로 '00고분'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되었으며, 모두 6기에서 확인된다. 이외에도 원대형으로 조성된 사례도 보이는데 담양 중옥리 서옥고분 1기가 확인되었다(표 1).



함평 금산리 방대형고분(전남문화재연구소 2022)

나주 월양리 구양고분(동서종합문화재연구원 2021)



무안 고절리고분(목포대학교박물관 2002)

담양 중옥리 중옥고분(대한문화재연구원 2021)

[그림 1] 방대형 분구상 성토물 사례

이들 사례의 용도를 해명하는데 가장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것이 ‘무덤’임을 입증할 수 있는 고고학적 현상이 존재하는지의 여부일 것이다. 필자는 양자의 구분에서 ‘중심매장시설’의 조성 여부를 중요한 단서로 여긴다. 이들 사례들은 형태·규모·기술적으로 많은 부분에서 방대형 고총고분의 분구와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분구 중앙에 중심매장시설을 조성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본연의 용도와 관련되는 중요한 현상이다. 이는 방대형 분구를 조성한 주된 목적을 말해주는 것이며, 주검을 안치한 분구라는 용도 외에도 기념물 조성과 같은 다채로운 묘역 경관을 구성하는 요소 중 하나일 것으로 생각한다. 필자는 기존의 방대형 고총고분 자료 가운데 중심매장시설

[표 2] 고분과 분구상 성토물의 구분

구분	고분	분구상 성토물
방대형 분구	○	○
중심매장시설	○	X
배장묘	○	○
공간성	군집多	단독多
대표 유적 (보고서 명칭)	영암 옥야리 방대형 1호분 나주 복암리 3호분	함평 금산리 방대형고분 무안 고철리고분

을 갖추지 않는 경우를 ‘方臺形 墳丘狀 盛土物’로 규정한다.

최근 방대형 분구상 성토물 자료에서 눈에 띄는 점은 중심매장시설이 확인되지 않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분구상 성토물에 대해 무덤 용도라는 전제 하에서 ‘壽墓’ 혹은 ‘虛墓’ 성격으로 일괄하는 경향이 많았다. 심지어 분구 중앙부에서 중심매장시설의 조성 흔적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도 ‘고분’이라는 인식 하에서 후대의 훼손과 유실(목포대학교박물관 2002: 63;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2009: 132 · 2014: 83~85; 오동선 2020: 60~63)의 현상으로 설명하여 왔다. 이들 사례에 대해 기존의 시각대로 후대에 파괴 또는 훼손된 것이라면, 역으로 분구의 하층에 해당하는 정지층으로부터 0.5~1m의 높이에는 중심매장시설을 조성한 흔적이 일부라도 남아 있어야 한다.

그러나 중심매장시설과 관련한 흔적이 확인되지 않는 자료상으로 보면 지금의 ‘고분’ 개념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측면이 많다. 즉 고분의 분구와 형태적으로 닮아 있는 기념물 성격의 성토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정형성을 갖춘 방대형 분구에 대해 외형과 축조기술 상에 입각하여 그 본연의 기능에 대해 주의하지 않았던 것 같다. 물론 다양한 묘장제문화에 대한 검토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양자를 구분해 내기가 쉽지 않는 문제라고 생각되나, 그렇다고 고분이라는 대분류 속에서 일괄하는 것은 그 목적과 기능을 회석시키는 해석일 수 있다는 것을 염두 할 필요가 있다.

III. 자료 검토

1. 현황

영산강유역에서 방대형 분구를 갖춘 성토물은 영산강 상류권에서 서남해안권까지 모두 확인된다. 상류권은 장성·담양·광주지역을 중심으로 확인된다. 중하류권은 가장 밀집·분포하는 양상이며, 나주·함평·무안·영암지역까지 고른 분포를 보인다. 서남해안권은 해남·장흥지역에서 극소수로 확인된다. 이들 자료 가운데 필자가 방대형 분구상 성토물로 분류한 사례들은 아직 서남해안권에서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방대형의 분구 중앙에 조성된 중심매장시설 유형은 크게 목관·옹관·석곽·석실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중심매장시설의 유형 변화는 시간성을 반영한 결과이며, 목관·옹관은 석곽·석실이 출현하기 이전에 3~5세기 전엽대까지 유행한 재지계의 보편적인 매장시설로 이용되었다. 옹관의 경우, 나주 신촌리 9호분, 무안 덕암 2호분 등과 같이 5세기대에 들어 고총화된 분구를 갖춘 사례도 있어 양자 간 차이를 보인다. 석곽·석실 유형은 방대형 분구의 중심매장시설 유형으로 주류를 이루게 되며, 5세기 중엽에 초현한 영암 옥야리 방대형 1호분을 시작으로 하여 사비기까지 연속된 나주 복암리 3호분 사례에서 잘 드러난다.

방대형 분구의 주된 기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우리에게 익숙한 고분으로 불리고 있는 성토물로서 분구 중앙에 시신 매장을 위한 옹관·석실 등 중심매장시설을 조성하였다. 나주 대안리 9호분·복암리 3호분 등 방대형 분구로 조성된 대부분의 성토물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다른 하나는 방대형 고총고분과 외형·기술적으로 유사성이 많지만, 본연의 목적이 시신 매장이 아닌 인물·사건·장소 등 당대의 사회적인 의미를 기억 또는 기념하기 위한 일종의 기념물 성격으로 조성된 성토물이 있다. 이 중 후자의 기능으로 구분할 수 있는 사례는 모두 6개소에서 확인되며, 나주 동곡리 횡산고분, 무안 고절리고분, 영암 갈곡리 1호분 등이 있다. 이들 사례는 원대형으로 조성된 담양 중옥리 서옥고분 1기를 제외하면 대부분 방대형 분구상의 외형을 띠고 있어 방대형이 압도적으로 선호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군집화를 이루지 않고 대부분 단독으로 조성된 양상이며, 주변을 넓게 조망할 수 있는 가시권이 두드러진 지점에 입지하는 특징을 보인다.

[표 3] 영산강유역 방대형 고분 및 분구상 성토물 현황(한국민 2019에서 자료 보완 후 인용)

구 분	유적명	성격	입지	규모(m)	매장시설		연대	비 고	
					중심	기타			
영 산 강 상 류 권	장성 대덕리	고분	구릉 사면	(7.40×6.60)×	석1	-	5C후	묘광과 벽석흔 노출, 반지상식	
	장성 월정리	고분	구릉 사면	2호:7-7.90×8×? 4호:6.4×7.8×	-	-	5C후	동일묘역에서 원형분 공존	
	광주 평동A(원두)	고분	평지	15호:11×10.05×	-	-	(5C후- 6C전)	분구유실, 제형→방대형 이행	
				16호:8.95×11.30×					
				41호:9.60×12.30×					
	광주 산정동 지실	고분	구릉 말단	1호:(15.2)×	-	-	(5C후)	추정 방대형, 제형→ 방대형 이행. 2호분은 4C대 주거지 파괴	
				2호:(15.08)×					
영 산 강 중 하 류 권	광주 오선동	고분	구릉 말단	1호:10.1×19.47×	-	-	5C후- 6C전	분구유실, 제형→방대형 이행	
				2호:8.9×16.8×					
				3호:8×12.4×					
				4호:8.8×11.8×					
				5호:(6.4)×6.4×					
				6호:10×11.2×					
	담양 중옥리 중옥	분구상 성토물	구릉 말단	17×9.9~11× 1.2~2.3	-	-	(5C후)	성토재, 주구無	
영 산 강 중 하 류 권	나주 대안리	고분	구릉 말단	3호:18×19×(5)	(옹?)		(5C후- 6C전)	1994년 기초조사, 주구에서 고배편, 기대편 등	
			구릉 능선	8호:8.95×10.75× 1.45-2.87	옹4			1918년 발굴조사	
			구릉 사면	9호:44.3×34.9× 7.35-8.41	옹9			1918년 발굴조사	
	나주 덕산리	고분	구릉 정상	11호:16×20×	옹2		(5C후)	제형→방대형 이행, 주구에서 개배류, 고배류 등	
	나주 복암리	고분	구릉 말단	2호:14.2×20.5× 4-4.5	-		(5C후)	1996년 기초조사, 주구에서 개배류 다수 출토	
				3호:42×38×6	석1	목1,옹23, 석16	5C후- 7C초	제형에서 방대형으로 개축(96석실 중심)	
	나주 장동리	고분	구릉 사면	26.5×19.7×2.7	-	옹1, 석1	(5C후)	분할성토, 조사단: 옹관(4C중·후), 석곽(6C중)	
	나주 방두	고분	구릉 말단	(20)×(2.5)	옹1	옹2	5C후	반지상식, 6C전엽까지 주가장	
	나주 가흥리 정가	고분	구릉 능선	19.48×14.70×2.16	석1	옹5, 석3, 목1	5C후- 6C전	선행분구를 기반으로 방대형으로 개축	
	나주 신촌리	고분	구릉 능선	7호:20×	-	옹1	(5C후)	1938년 발굴조사	
				9호:30×27×5	옹11		5C후- 6C전	1917-1918년 발굴조사 후 1999년 재발굴조사	

구 분	유적명	성격	입지	규모(m)	매장시설		연대	비 고
					중심	기타		
영 산 강 중 하 류 권	나주 정촌	고분	산사면	30×7	석1	석6, 옹6, 목1	5C후	—
	나주 동곡리 횡산	분구상 성토물	구릉 말단	20~25×1.72	—	옹3,석1	(5C후)	옹관(5C중후엽), 석실(6C후)
	나주 월양리 구양	분구상 성토물	구릉 말단	23×3	—	—	(5C후)	주구에서 소량의 연질토기 출토
	함평 금산리 방대형	분구상 성토물	구릉 정상	51(장축)×9	—	—	5C후— 6C후	분구층석, 중국자기, 형상식륜
	함평 중랑	고분	산능선	30×30×?	(석?)	—	5C후	주구에서 벽석재 확인.
	함평 만가촌 1호분	고분	구릉 사면	7.5×8.1×0.6	—	옹1	4C전	14기 분구 중 6기 전면발굴조사 (목관 29기, 옹관 11기)
	무안 고절리	분구상 성토물	구릉 말단	37.47×38.20×3.78	—	옹1, 석1	6C전—중	중심매장시설無, 추가묘는 도장 가능성
	무안 덕암 2호분	고분	구릉 말단	13.5×13.7×2.5	옹3		5C후	1호분 (추정)원형계, 구축묘광 조성.
	무안 맥포리	고분	산능선	27×?×4	(석?)	—	5C후	할석열, 대형판석 1매 노출
	무안 연리	고분	구릉 사면	12.7×12.5×?	옹1		(5C후)	분구 멀실
	무안 구산리	고분	산사면	12.2×9×2	옹1	옹5	5C후— 6C전	수직획장, 제형에서 방대형으로 개축, 3호옹(중심)은 반자상식
	무안 평산리 평림	고분	구릉 사면	20.25×18.3×?	—	—	(5C후)	조사단은 4C대로 추정
	무안 하묘리 두곡	고분	구릉 사면	14.4×?	—	—	(6C전)	—
	무안 인평 1호분	고분	산사면	13×11×0.80	목1, 옹1	목2, 옹2	3C후— 4C전	참호형 묘광
	영암 금계리 11호분	고분	구릉 사면	6.8×10.25×?	—	—	4전	분구멸실. 분구 26기 중 제형 25기
서 남 해 안 권	영암 신연리 연소	고분	평지	14.3×14.1×1.8	옹1	—	5C후— 6C전	성토재 이용, 분할성토
	영암 옥아리 방대형 1호분	고분	구릉 정상	36.70×32.23×6.71	석1	목1,옹3, 석1	5C중	성토재 이용, 구축묘광, 분할성토. 5C중—6C전.
	영암 내동리 쌍무덤 1호분	고분	구릉 말단	53×33.6×7	석1	옹2, 석3	5C후— 6C전	1호 석실→ 1호 석곽→ 2호 석곽→ 2호 석실 순서
	영암 갈곡리 1호분	분구상 성토물	구릉 능선	(20×3)	—	—	5C후	추정 방대형, 중심매장시설無, 주구 無
	해남 신월리	고분	구릉 사면	20×14.1×1.5	석1	—	5C전	추정 방대형, 층석, 주칠
장 흥 상방촌B	해남 분토	고분	구릉 사면	3호:(17.5)×20.5×?	목1	목1, 옹1	5C중—후	분구 멀실
				4호:(12×9.5)×?	석1	옹2		
	장흥 상방촌B	고분 고분	평지	1호:9.36×9.24×? 2호:10.40×8.96×?	목1	목3 —	5C전	반지상식, 제형→방대형 이행

2. 조영시기

영산강유역에서 방대형 분구의 존재는 밑면의 평면형태가 네모 형태라는 유사성으로 본다면 3~5세기 전엽에도 간헐적으로 보인다(한옥민 2019: 41~43). 무안지역을 비롯하여 서남해안권의 해남·장흥지역에서 확인된다. 대체로 1~2기의 기수로 조성되는데 영산강유역에서 梯形 墳丘가 성행한 상황과 관련된 결과로 볼 수 있다.

고분 묘역에서 방대형 분구가 차지하는 개체 수는 함평 만가촌고분, 영암 금계리고분, 해남 분토고분 등의 사례에서 잘 드러난다. 함평 만가촌고분은 14기의 중 1호분 1기가 존재, 영암 금계리고분은 26기 중 5·11호분 2기가 존재, 해남 분토고분은 7기 중 3·4호분 2기가 존재하는데 제형 분구가 성행했던 시기에 대부분 주류를 점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재지계 전통의 목관과 옹관 중심으로 매장되고, 최고 높이 1.5m 이하의 저분구 규모로 조성되어 병행기의 제형 분구의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는 양상이다. 5세기 중·후엽에 조성된 해남 분토 4호분의 경우는 주구만 일부 확인되어 전체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우나, 분구상에 석곽 1기와 함께 옹관 2기를 매장하여 여전히 다장 풍습을 따르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기반토를 파고 조성된 석곽의 바닥 위치로 미루어 볼 때 일반적인 제형 분구의 높이를 상회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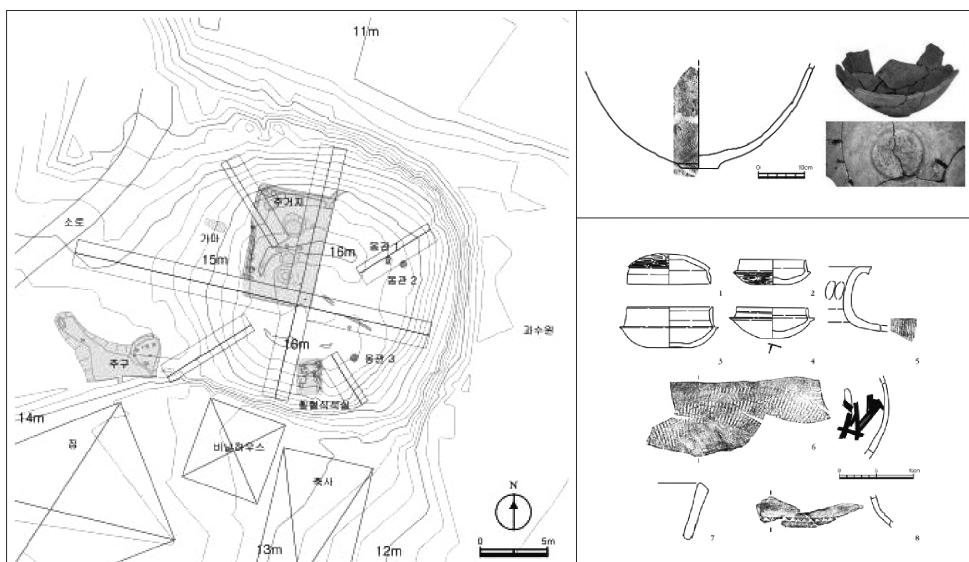
방대형 분구의 원형이 잘 보존된 무안 인평 1호분, 함평 만가촌 1호분의 경우도 분구 높이는 1m 이상 유존하지 못한다. 따라서 조성 의미는 제형과의 형태적인 차이 정도에 머물렀던 수준이 아닌가 생각된다. 만약, 방대형 분구를 축조한 세력이 외부로부터 이주한 선진 세력이거나 계통을 달리한 집단으로 이해하더라도 힘의 정도가 재지 세력보다 우위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한옥민 2016: 155~156). 왜냐하면 규모, 축조기술, 부장품 등에서 위계를 논의할만한 내용들이 확인되지 않았고, 군집화 현상도 보이지 않는다. 5세기 전엽에 조성된 해남 신월리고분⁵⁾의 경우도 이와 비슷한 양상이다. 석관형석실은 흑색점질토를 이용한 정지작업 후에 구지표면을 파고 조성하였으며, 그 위에 성토를 불과 1.5m 높이로 쌓아 올린 점도 그러하다. 이들

5) 해남 신월리고분은 倭系古墳(김낙중 2013: 160~161)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새로운 묘제가 서남해안 연안을 따라 나타나기 시작하는 시기에 조성되었다. 수혈식석곽이라는 새로운 매장시설을 선택하였고, 재지의 제형 분구⁶⁾가 아니라 높이 1.5m의 방형 분구⁷⁾로 조성하였다. 재지의 제형분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다장이 아닌 단장 장법을 보여 전통의 묘제 요소를 담지 않았다는 점이다.

방대형 분구의 유존상태가 대부분 불량한 것도 분할·교호성토 등 오랜 세월을 견딜 만한 축조기술을 갖지 못한 부재에서 찾아진다.

필자가 방대형 분구상 성토물로 구분한 사례의 조영 시기는 대체로 기원후 5세기 후반~6세기 전반에 걸쳐 있다. 물론 보고자의 견해에 따라 벗어나는 예도 있다. 나주 동곡리 횡산고분과 영암 갈곡리 1호분은 각각 3세기 중반~4세기 전반(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2009: 131~132)과 4세기 전엽~5세기 전엽(오동선 2020: 53~58)대로 상회한다고 보고되었다.

나주 동곡리 횡산고분의 연대 설정 근거는 3기의 옹관 형식에서 찾고 있는데, 구경부의 굴곡이 또렷하면서 저부에 돌기가 있어 이른 형식(2형식)으로 보았다. 횡치한 1호는 발굴조사보고서 39쪽의 북동토층도 기술에 언급되었듯이 황갈색사질토층(Vf층) 성토과정에서 안치되었고, 분구 표토 제거에 따라 노출된 최상층에 해당된다. 직치된 2호는 IVb층 성토 중에 세워 둔 것으로 구지표에서 1m 높이에 위치한다. 역시 직치된 3호는 VIIb층 성토 중에 세워 둔었으며 구지표에서 1m 높이에서 노출되었다. 횡혈식석실의 묘광이 이 층까지 내려왔다.



[그림 2] 나주 동곡리 횡산고분의 분구 및 2호 옹관·분구 출토유물(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2009)

또한 분구와 옹관의 관계만을 놓고 보면, 1~3호 옹관 모두 묘광을 굴착한 방식이 아니라 분구 성토 중에 매장되었다는 점이 흥미롭다. 분구 성토과정에서 옹관을 매장

한 사례는 나주 정촌·월양리 구양Ⅲ·신촌리 9호분·영동리 4호분⁶⁾ 등에서 확인되는데 모두 5세기 후반~말에 조영되었다. 가장 의문점이 드는 부분은 길이 25m에 가까운 대형급 방대형 분구가 4세기 전반에 출현했다는 것이다. 또한 분구 확장 가능성 을 시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장시설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과 다르게 중앙부에 중심매장시설을 조성하지 않았던 이유도 설명하기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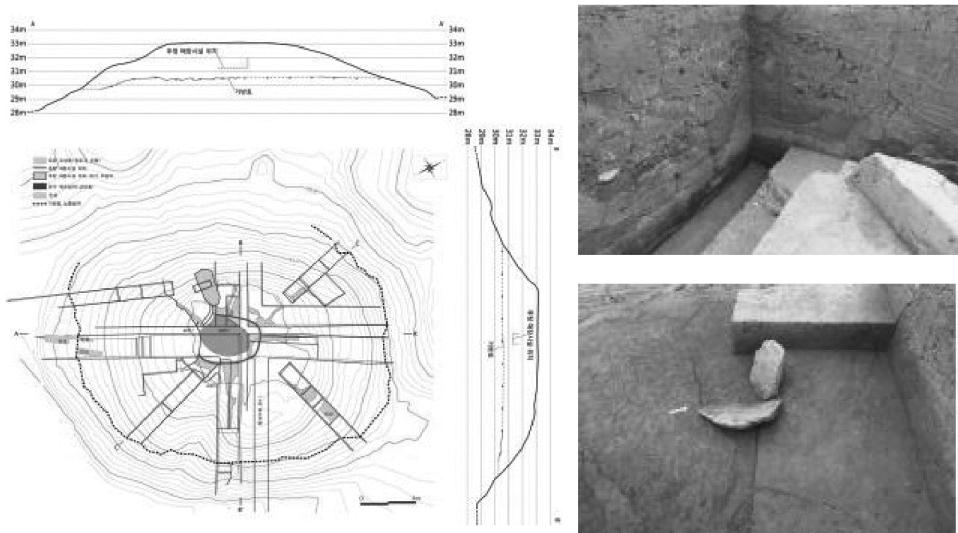
따라서 나주 동곡리 횡산고분의 연대 설정은 옹관 형식이라는 단일의 고고학적 자료에 근거하여 설정하기보다는 분구의 규모 및 평면형태, 성토재 이용, 분할성토, 분구 성토 중에 옹관을 매장한 현상 등 유구의 전반적인 양상을 종합하여 5세기 중·후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영암 갈곡리 1호분은 저평한 구릉 정상부에 조성되어 있으며, 70m의 이격 거리를 두고 남쪽부에 2호분이 자리한다. 주민들은 1호를 ‘큰왕무덤’, 2호를 ‘작은왕무덤’으로 부르고 있다. 발굴조사 결과 중심매장시설과 주구시설이 확인되지 않았다. 조사자는 분구 중앙부쪽으로 경사져 점토괴열이 확인되어 구축묘광을 조성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분정부 부근에서 확인된 석재 4매(개석용 2매, 벽석용 2매)는 치석된 면과 개석의 규모와 형태로 보아 왜계고분인 신안 배널리고분, 해남 신월리고분과 공통점을 보인다는 점에서 석곽으로 추정하였다. 그러나 이들 석재가 구획재의 기능인지 혹은 매장시설의 부재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유물은 유공광구소호편, 호 구연부편이 유일 하며, 5세기 전엽으로 추정하였다. 중심매장시설의 조성은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는데, 들어설 범위를 최대 3m 가량 남기면서 주변에 제방상으로 쌓아올린 구축묘광이 확인되었을 뿐이다. 또한 영산강유역 고분의 일반적인 요소인 주구를 굴착하지 않았고, 영산강 중핵에서 매우 이질적인 요소라는 점에서 무덤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영암 갈곡리 1호분의 양상은 나주 동곡리 횡산고분과 동일한 맥락으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조사자는 중심매장시설을 왜계 석곽으로 추정하였는데, 그렇다면 상한이 4세기 전엽대의 가장 이른 시기의 석곽묘 사례가 된다. 또한 서남해안권이 아닌 영산강 내륙에서 왜계고분이 조성되는 배경에 대해 궁금하다.

이외에 분구상 성토물로 구분한 사례들은 모두 5세기 후반에서 6세기 전반에 걸쳐 축조된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고총고분 출현 이후인 5세기 후반에 시작된 점은 공

6) 나주 영동리 4호분은 모든 개체의 옹관이 복원·제시되지 못하였고, 분구 확장에 대한 내용이 자세하지 않아 더 이상의 언급은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방대형에 가까운 최종 분구가 직경 25m 내외인 점을 감안하면 4세기 전반에 수직확장된 방대형의 가장 이른 사례가 된다.



[그림 3] 영암 갈곡리 1호분의 분구 및 묘광(오동선 2020)

통된다. 다만, 규모가 직경 30m 이상이면서 높이 3m 이상인 대형급인 경우는 출토 유물의 시간 푸이 넓게 확인되고 있다. 함평 금산리 방대형고분은 6세기 후엽까지 이어지고, 무안 고절리고분 역시 6세기 중엽까지 지속되고 있다.

분구상 성토물 조성이 마감되는 6세기대에 들어서 돌연 무덤 용도로 전환된 사례도 일부 있다. 이들 사례는 고분이라고 불러도 무방할 정도로 분구 외연을 따라 옹관·석곽·석실이 추가되어 다장 전통을 이어가는 듯한 일면이 관찰된다. 고고학적으로 중요한 특징인 최절정에 달하던 고총고분의 축조 정지, 전용옹관의 제작 종언 등 최소한의 신분 표상의 지표들이 사라지는 흐름과 궤를 같이하고, 시간대가 대체로 6세기 중엽 이후에 발생하고 있다. 이를 가장 단순하게 보면 도장(盜葬) 가능성도 다분해 보인다는 점에서 마한 해체기의 상황과 연결되는 사회적인 현상으로 추정해 본다. 결국 분구상 성토물에 추가묘가 매장되면서 본연의 기능을 다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필자는 이를 방대형 분구상 성토물이 지닌 사회적 기능과 상징성에 대한 소멸화⁷⁾의 한 단면으로 이해한다.

7) 6세기대에 들어서 보이는 거대 성토물의 종언은 율령체제의 단계적 설립, 불교문화의 보급, 왕 중심의 중앙집권 국가의 확립 등이 작용하여 무덤이라는 본래의 역할로 전환되는 것을 반영한다(박진수 2009: 86~87; 山本孝文 2016: 96~97).

IV. 방대형 분구상 성토물의 축조 배경과 사회적 의미

고분에서 분형은 출자나 계통의 구분을 표현하려는 의도의 결과물이며(김낙중 2009: 158~159), 단순히 규모의 대소 차이를 벗어나 지배의 정당성과 상징성⁸⁾을 나타낼 수 있는 권력의 산물이기도 하다. 분구를 완성해가는 과정에서 의례적 행위를 반복하여 집단의 존엄성을 표출하고, 분구를 장식하여 외형의 화려함을 추구하기도 한다(이영철 2015: 191~192). 때문에 어떤 것을 표상하는 상징물의 조성을 통해 본연의 의미를 넘어서 기존의 뜻과는 다른 새로운 의미를 획득하게 된다(안소미 2019: 6). 건축물과 같은 인공물에서의 상징성은 물리적 형태인 각 건축물과 거기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기능, 활동, 그리고 파생적인 여러 의미를 의미하며, 가시적 측면에서는 주로 높이와 규모, 독특함에 크게 좌우되는 경향이 있다(최소희 2010: 21).

이렇듯 당대의 사회적 상징성이 부여된 대표적인 고고학 자료 중 하나가 ‘고총분구’의 조성으로 볼 수 있다. 필자는 고총고분의 분구와 형태·규모·기술적으로 유사한 ‘분구상 성토물’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

영산강유역에서 정형성을 갖춘 방대형 분구의 출현은 5세기 중엽 이후이며, 영암 방대형 1호분을 출현으로 보고 있다. 고총고분 출현과 함께 새롭게 조성된 고대한 방대형 분구는 재지의 제형 분구 전통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요소(석실·석과 중심, 분할성토 등)로 본다면 자체적인 발전으로 이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대외관계에서 획득된 정보와 물자를 통해서 가능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는데 백제·가야·왜 등 다원화된 요소들의 증가로 보아 이전보다 대외관계가 훨씬 복잡해졌음을 방증한다. 이즈음에 혈연적 공동체 중심에서 특정 혈족 중심으로 대체 되기도 하고(김낙중 2014: 38~40), 광주 동림동유적의 경우는 백제의 지방도시가 건설되기도 하고(이영철 2015: 23), 담양 성산리·함평 노적주거지와 같은 5세기대 취락유적에서는 일명 외구부기주거지(外溝附加住居址)가 등장하는 등 마한 전통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새로운 요소와 경관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고총고분의 경우도 이러한 변화의 흐름과 같이하는 양상인데 성토물 등에 반영된 신기술은 물질자료뿐만

8) 상징(symbol)은 고대 그리스어에 어원을 두고 있다.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 친분이 있는 두 사람이 서로 헤어질 때, 한 물체를 두 개로 쪼개어 나누어 가지고 떠났다가 훗날 만날 때에 짹을 맞추어 봄으로써 서로를 확인하던 습속이 있었다. 이와 관련되어 사용되던 ‘조립하다’, ‘찌맞추다’를 뜻하는 그리스어 동사 심발레인(sysballem)으로부터 유래하였다(유영옥 1994: 107).

아니라 사고·관념체계까지 새로운 인자들을 이식시킨 사회적 현상 중 하나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영산강유역에서 고총기에 조성된 분형은 익히 알려진 대로 방대형·원대형·전방후원형이 확인되고 있다. 이들 분형은 외형적인 모습은 서로 다르지만, 전통의 제형 분구 축조기술과 관념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요소들이 새롭게 적용되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처음부터 밀면적이 고정되어 탁월한 규모와 높이로 쌓아 올려간다는 것인데, 비정형성을 띠는 나주 복암리 3호분의 분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즉 처음부터 방대형으로 출발한 것이 아니라 선행분구를 수직확장하여 최종적으로 제형에서 방대형 분구로 전환하였다. 기술사적 측면에서 보면, 제형 분구는 평면형태에서 정형성을 갖지 못하므로 방대형과 원대형 분구보다는 상대적으로 고총화하기 어려운 측면도 고려할 수 있다.

그래서 방대형 분구상 성토물과 같은 고총기에 조성된 성토물에서 주목할 부분은 처음부터 기획된 성토 기술에 기반하여 한 층 한 층 켜켜이 쌓아가는 과정에 반영된 ‘기획력’과 ‘기술력’을 들 수 있다. 분구 성토부를 최소한 3m 이상을 쌓아 올리려면 묘지 선택부터 성토부의 각 공정마다 누군가의 지휘를 받지 않고서는 완성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세부적으로는 성토재 사용, 소구 조성, 구축묘광 조성, 기반층 삭토법 등 고난도의 기술들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하는데, 성·제방과 같은 실용적인 시설에 소중하게 쓰여야 할 기술들이 비실용의 시설인 고총고분과 분구상 성토물 조성 시에도 상당부분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기술들의 적용 자체가 사회·정치적으로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는 방대형 분구에 부여된 상징성을 말해주는 단서이며, 방형계 일색으로 ‘분구상 성토물’을 조성한 것도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다.

고총고분은 5세기 중엽~6세기 전엽이라는 짧은 시간에 걸쳐 영산강유역 전역에 조성되는데 이들 중 유일하게 방대형 고총고분과 방대형 분구상 성토물만이 고총기의 전 기간 동안에 조성된다. 이는 최고 높이가 10m에 이르는 가시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고총기의 분형 전체를 대표한다는 특별한 이미지를 형성하였음을 의미하며, 5세기 중엽의 초현기부터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 결과 방대형 분구상 성토물은 본연의 기능을 하기 위해 단독적으로 점유된 장소를 선택·조성하였고, 일부는 규모에서 고총고분보다 우월적으로 조성한 것도 고유의 의미를 표출·전달하기 위한 배경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상으로 볼 때 방대형 분구상 성토물은 고총고분의 출현과 마감을 같이하는 유일한 성토물로서 당대 사회 전반을 대표하는 인문적 경관으로 자리매김하였고, 영산강유역 전역에 걸쳐 유행하였다. 그 용도는 주로 무덤으로 이용되면서 권력과 지배의 당위성을 표현하는 성토물로 인식되었고, 때로는 축조 세력의 성토물로서 묘역 속에 자리하여 집단의 안녕과 사회 통합을 유도하였다. 다만, 방대형 분구상 성토물은 이미 고정화된 고총고분의 분구 축조공정을 그대로 이용한 것으로 보아 ‘이원적 지시 대상(무덤+기념물)’인 고분의 형(形)에 기반함을 알 수 있었다. 방대형 일색으로 기념물적 성토물(필자의 분구상 성토물)까지 조성한 것은 당대에 특정 형태가 갖는 사회적인 상징성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일 것이다. 대외적으로는 백제왕실과 같은 선진국의 권위와 연결하여 지배 권력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고(이정호 1997: 78~79), 백제와 방대형 분구상 성토물이라는 묘제 공유를 통해 정치적 결속력 강화를 위한 수단(우재병 2013: 163~166)으로 선택·조성한 측면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V. 맷음말

방대형 분구상 성토물에 대해서는 해명되어야 할 몇 가지 과제가 있다.

첫째, 방대형 분구상 성토물의 등장 배경에 대한 문제이다. 영산강유역에서 5세기 중엽에 초현한 방대형 분구는 축조 주체에 대해서 크게 재지계, 백제계로 보고 있다. 이 문제의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5세기 중엽의 취락과 분묘 자료의 전체적인 시·공간적 변화 양상이 파악되어야 한다. 만약 선진의 백제로부터 직접적으로 이식되지 않았다면 기술체계와 개량이 현지에서 성공적으로 실현된 출발점이라는 의미가 있을 것이다. 또한 이 시기를 기점으로 재지의 대표 분형인 제형 분구의 본격적인 소멸화 현상도 함께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고총분구의 기능에 대한 인식 문제이다. 그동안 방대형·원대형 등 정형성을 갖춘 분구의 기능에 대해 무덤으로 보아왔고, 이중 탁월한 규모의 고총분구는 무덤의 기능을 넘어선 피장자나 축조세력의 위세를 대내외적으로 표출하는 기념물적 성격을 지닌 복합체로 이해하여 왔다. 이는 형태·기술적으로 양자를 명확하게 식별하기 어려운 속성결집상이라는 부분을 지적할 수 있으나, 계획 단계부터 무덤 용도를 의도하지 않았던 사례들이 확인됨으로써 양자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안 및 적절한

용어의 제시가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 5세기 중엽 이후에 더욱 다채로워지는 상·장제의 이해와 최절정기 마한고분의 경관 이해와 관련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셋째, 고총분구에 깃든 상징성 문제이다. 고총분구의 작동 범주는 크게 특정 가계 안, 수계권 내의 지역공동체, 해양과 내륙을 아우르는 광역단위의 지역공동체로 나뉘고 있다. 일반적으로 상징성은 “다른 어떤 것을 표상하는 그 무엇(something that stands for something else)”으로 정의되는데(김용직 1998: 12) 이러한 추상적이고 형이상학적 관념이 고고자료에 어떤 형태로 반영되는지에 대해 심화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마한 장송의례 등 정신문화와 관련된 연구 영역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최근 취락과 고분 연구에서 두드러진 성과 중 하나가 마한의 생활 및 장송의례와 관련하여 목적, 대상, 장소에 따른 의례 유형이 파악된 것이다. 고분자료를 포함한 마한문화의 복원은 정신문화적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의례의 연속성 여부는 그 마감시점을 판별할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되기 때문이다.

투고일 2023. 4. 29 | 심사완료일 2023. 6. 5 | 게재확정일 2023. 6. 7

참고문헌

-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2009,『나주 동곡리 동곡리 횡산고분』.
- _____, 2014,『영암 갈곡리고분』I.
- 권오영, 2011,「喪葬制와 墓制」,『동아시아의 고분문화』, 서경문화사.
- 김길식, 2009,『고분』,『한국고고학전문사전-고분편-』, 국립문화재연구소.
- 김낙중, 2009,『영산강유역 고분 연구』, 학연문화사.
- _____, 2013,「5~6세기 남해안 지역 왜계고분의 특성과 의미」,『호남고고학보』45, 호남고고학회.
- _____, 2014,「방형·원형 고분 축조기술」,『영산강유역 고분 토목기술의 여정과 시간을 찾아서』, 대한문화재 연구원.
- 김용직, 1998,『상징』, 문학과 지성사.
- 대한문화재연구원, 2021,「남양 중옥리 중옥고분 정비사업부지 내 문화유적 정밀발굴조사 약보고서」.
- 동서종합문화재연구원, 2021,「나주 월양리 구양고분 학술발굴조사 약보고서」.
- 목포대학교박물관, 2002,『무안 고절리고분』.
- 박천수, 2009,『고총고분』,『한국고고학전문사전-고분편-』, 국립문화재연구소.
- 박형열, 2014,『영산강유역 3~5세기 고분 변천』, 동국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山本孝文, 2016,「후기·종말기고분의 양상-한반도에서 고분의 종언과 일본의 종말기고분-」,『한일의 고분』, 한일교섭의 고고학 삼국시대 연구회.
- 성낙준, 1997,「옹관고분의 분형-방대형과 원대형을 중심으로-」,『호남고고학보』5, 호남고고학회.
- 성정용, 2000,「백제 한성기 지분구분과 석실묘에 대한 일고찰」,『호서고고학』3, 호서고고학회.
- 안소미, 2019,「사물의 상징성을 활용한 미술수업이 자아정체감 형성에 미치는 영향-고등학교 1학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동선, 2020,「영암 갈곡리 1호분의 「조와 성격」」,『성기동』13, 왕인박사현창협회.
- 우재병, 2013,「5~6세기 백제의 중충적 묘제교류와 그 정치적 상호작용」,『한국사학보』53, 고려사학회.
- 유영옥, 1994,「공공정책의 상징성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문형, 2020,「고창 봉덕리고분군의 고고학적 위상과 가치」,『고창 봉덕리고분군의 가치와 사적획대지적 방안』, 마한·백제문화연구소.
- 이상호, 2015,「상징물로서의 금속공예품 제작-스테인리스 스틸 소재의 트로피를 중심으로-」, 국민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영철, 2015,「영산강유역 고대 취락 연구」, 목포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정호, 1997,「전남지역의 옹관묘」,『호남고고학보』6, 호남고고학회.
- 임영진, 2002,「전남지역의 分「묘」」,『동아시아의 주「묘」』, 호남고고학회.
- 임영진·조진선, 2000,「Ⅲ. 종합적 고찰」,『전남지역 고분 축량보고서』2, 전라남도.
- 전남대학교박물관, 1999,『복암리고분군』.
- 전남문화재연구소, 2022,「함평 금산리 방대형고분 발굴조사 학술자문회의 자료집」.
- 최성락, 2009,「영산강유역 고분연구의 검토」,『호남고고학보』33, 호남고고학회.
- 최소희, 2010,「도시 활성화를 위한 복합문화시설의 계획에 관한 연구-지역성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영주, 2015,「영산강유역의 분구묘와 그 전개」,『마한분구묘의 기원과 발전』, 마한연구원.
- 한소영, 2009,「서울 도시공원의 장소적 재현 연구-기념성, 상징성, 장소기억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옥민, 2016. 「영산강유역 고분의 분형과 축조과정 연구」. 목포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 2019. 「영산강유역 방대형분의 출현과 축조배경」. 『호남고고학보』 62, 호남고고학회.
- , 2022. 「영산강유역 분-「상기념물의 축조와 사회적 의미」. 『마한·백제문화』 40, 마한·백제연·소.

A Study on the Social Meaning of Squarish Platform Mound-shaped Embankment in the Yeongsangang River Basin

Han, Ok-Min(Research Professor, Daehan Institute of Cultural Properties)

This article examines the social meaning of squarish platform tomb in the Yeongsangang River basin, which was built from the mid-5th century to the 6th century.

The author defined the absence of tomb facilities among the square platform tombs as a ‘mound-shaped embankment’.

As a result of the review, there are six types. First, it's the only mound-shaped embankment that runs from the beginning to the end of the period when tombs flourished. Second, new technologies have affected accidents and even accidents, and one of the related archaeological data is the completion of the squarish platform tomb. Third, its use was also used as a tomb, and some were built as monuments. Fourth, the form is identified by a small number of circles, and the square is overwhelmingly preferred. Fifth, mound-shaped embankment is similar to a tomb in shape, size, and technology. Sixth, it coincides with the disappearance of the indicators of status by stopping the construction of the tomb and stopping the big jar-coffin at this time.

From the above perspective, mound-shaped embankmen was used at all times and became a representative tomb landscape, and was popular throughout the yeongsangang River basin. Its use was mainly used as a graveyard, expressing legitimacy for power and domination, and sometimes

led to the well-being of groups and social integration. However, in the case of monuments, it was found that they were made in the form of 'two-way indicators(grave+monument)' using a certain squarish shape. The representation of the tomb on the tombstone in the form of a square can be seen as a kind of social symbolism. Externally, it was chosen as a symbolic means of justifying power and strengthening political solidarity in connection with Baekje.

The study of ancient tombs is studied through materials, but studies of ancestral rites, funerals, and cemetery landscapes should also be considered. What we perceive as tombs is that we need to understand the spiritual and cultural nature contained within them. The research topic of this article, mound-shaped embankment, is also expected to take a step closer to the field of mental culture when studying from this point of view.

Key words : Yeongsangang river basin, Squarish platform mound, Mound-shaped embankment, Monument, Baekje

